

오페라 '춘희'

— 우리나라에서 공연된 최초의 오페라 —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오페라 작품 중 하나를 말하라면 단연코 베르디 작곡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La Traviata)'가 꼽힐 것이다. 1853년 발표된 이 작품은 비교적 베르디의 초기작에 속하지만 그의 명성이 서서히 알려지고 작곡가로서 실력을 인정받을 무렵 등장한 작품으로 젊은 베르디의 신선하고도 파격적인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오페라다. '잘못된 길에 들어선 여인' 정도로 해석되는 '라 트라비아타'가 우리에게 '춘희(椿姬)'라고 많이 알려진 이유는 일본의 영향 때문이다. 이 오페라가 소개된 20세기 초반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있었으므로 일본 번역을 따라 '춘희'라고 불리게 되었다.

일본에서 이 작품이 '춘희'로 불리는 것은 알렉산드르 뒤마 피스의 원작소설 제목이 '동백꽃 부인(La Dame aux Camélias)'인 것에서 유래했다. 항상 가슴에 동백꽃을 달고 다니던 파리 사교계 최고의 고급 창부 마그리트가 부르주아 청년과 나누는 짧고도 가슴 아픈 사랑이야기를 다룬 이 소설은 큰 성공을 거두며 연극으로 공연되었는데 마침 당시 파리에 머물던 베르디가 그 연극에 감명을 받아 만든 것이 바로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이다.

화려하고도 애절한 선율과 여주인공의 비극적 운명이 언제 보아도 관객의 심금을 울리는 이 작품은 한국에서 최초로 공연된 오페라이기도 하다. 일제 강점기 전막 공연이 아닌 하이라이트만 공연하는 형식의 콘서트는 있었지만 제대로 무대의상을 갖춰 입고 드라마를 살려 공연하는 전막 오페라는 1948년 1월 16일에 열린 오페라 '춘희' 즉, '라 트라비아타' 공연이 한국 최초인 것으로 기록된다. 해방 후 어수선한 시국에 명동 시공관 무대에 오른 서양의 낯선 볼거리는 뜻밖에도 5일, 10회의 공연 기간 동안 매진사례를 거두며 3개월 뒤 재공연할 정도로 큰 성과를 남겼다. 여주인공인 비올레타 역은 소프라노 김자경과 마금희가 출연

했고 알프레도 역은 단독으로 테너 이인선이 공연하는 등 성악을 서양식으로 교육받고 공부했던 많은 이들이 함께 무대에 올랐다. 재미있는 것은 훗날 국립 오페라단 단장을 지내며 우리나라 성악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활약한 베이스 오현명도 "저녁 식사 준비 다 되었소" 단 한 소절을 노래하는 하인 역할로 출연

했다는 것이다. 당시 그는 서울대 음대 학생이었다. 두 사람의 비올레타를 비롯한 출연진들은 우리나라 최초로 오페라를 공연한다는 감격과 설렘에 출연료와 열악한 환경도 개의치 않고 온 힘을 다했다. 너무나 열정적으로 공연준비에 임한 나머지 부작용도 있었는데 소프라노 마금희는 관객들에게 더욱 좋은 노래를 들려주고자 노래 한 곡이 끝날 때마다 수시로 날달걀을 삼키다 그만 배탈이 나서 3일째부터는 김자경 혼자서 하루 2회의 무대에 서야 했다.

요즘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하고 황당하기까지 한 한국 최초의 오페라를 기획하고 무대에 올린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이 공연의 알프레도 역을 맡은 테너 이인선이었다. 세브란스 의전 출신의 의사였던 그는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면서도 성악에 대한 관심을 멈추지 않았다. 의사가 된 뒤 최초로 이탈리아로 성악 유학을 떠난 그는 귀국 후 번역, 제작, 주역에 이르는 일인 다역을 해가며

노력한 끝에 마침내 최초의 오페라를 이 땅에서 공연하게 된 것이다. 오페라는 크게 성공했지만 경영에는 어두웠던 관계로 그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어 살던 집과 피아노까지 처분해야 했다는 안타까운 후일담도 전해진다. 테너 이인선은 이후 아까운 나이로 타계했으나 김자경을 비롯한 우리 오페라 1세대들이 대부분 그의 문하에서 수학한 뒤 한국 오페라의 토대를 만든 것을 생각하면 그가 남긴 공로는 지대하다. 그때의 주역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지만 베르디의 음악과 그들의 열정만은 아직도 우리 곁에 남아있다.



출처 : 조선오페라단 제공